

목어 나무와 크스님



화엄종찰 부석사 조사당 처마 밑에는 청망으로 보호되고 있는 나무 한그루가 있다. 팔담초 또는 선비화(線筆花)라고도 불리는 이 나무는 신라시대 의상 스님이 쓰시던 지팡이를 꽂은 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처마 밑이라 비도 이슬도 맞지 않고 1천5백여 년을 그 크기로 버티고 있다. 식물학적으로도 신비스러움이 더해진다.

스팸메일 공해 '위험 수위'

불자 세상보기

인터넷은 가치 중립적인 물리적 관계망일 뿐이지만, 어떤 의미에선 '가치 공유 공동체'다. 70-80년대 초기 인터넷 공동체는 통신 예절이라는 불문율을 지키는 동질적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상업 광고가 불제의 범위를 벗어나면 통신망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업 광고를 위한 전자우편의 사용 금지라는 인터넷의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했으며 관리체계가 법적인 장치도 부족했음에도 자료나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했다.

최근 무차별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90년대 초에 보편화된 정보에 대한 무료 혹은 저렴한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한 가상공동체의 윤리적 자기 규제라는 의무감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개방되면서 통제 불능의 오물 투기장으로 변해 버렸다. 스팸메일은 일종의 강제된 광고 전단지라 할 수 있다. 형소 비용은 고스란히 사용자와 사업자의 몫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소연할 곳도 없이 매일 아침 메일박스를 열어야 한다.

상품광고·음란사이트 등 매일아침 메일박스 청소 정부의 강력한 단속 필요

인터넷 본래의 '무지배적 디지털피아의 꿈'은 짊어질 것이다. 정보통신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면 인터넷 통신은 상호 의무 이행 체제보다는 물리적 강제에 의해 지탱될 것이고, 자율적 정보 공동체로서의 기능은 많은 부분 네트워크 밖의 물리적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스팸메일 방지법을 제정하면 인터넷은 질서를 회복하겠지만, 전산망 관리자, 사이버경찰, 감시원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

에 인터넷 유지 관리 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결국에는 무료 이메일은 물론이고 모든 정보가 유료화될 것이다. 통신업체들은 이미 불법적인 해커들에 의한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입 방지를 위한 컴퓨터 방화벽, 자료 유출 방지 등 네트워크의 운영을 위한 엄청난 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자율적인 의무의식에 맡겨졌던 것들이 지금은 법에 의해 결정되게 되었고, 분화되고 자율적이었던 것이 지금은 중앙 집중적인 행정 관료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상호 도덕적 의무의 이행이 약속되지 않는 가상공동체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구승희 동국대 윤리학 교수  
영혼들이 가상현실로 이주해 버리고, 육체들만 남은 심혼의 대지는 황량하고 척박하다. 이를 부드러운 인간의 영토로 바꾸려면 오직 이성과 도덕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롬바니의 무우수는 네팔에서 살(Shala)이라 불리는 사라수로 쿠시나기나라의 사라방수와 같은 종류라 한다. 이를 나무가 불자들에게 주는 감개는 특별하다 할 것이며 신앙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대구는 팔공산 성전앞 앞에 서 있는 수령 300년의 전나무를 '성철 스님 나무'로 부르기로 했으며 파계사 사거리에 있는 느티나무를 '현종 대사 나무'로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 전설이 깃든 관내의 고목들에 역사 속 인물의 이름을 붙이겠다는 것으로 파계사에는 '영조 임금 나무'로 불리게 되는 고목도 있는 모양이다.

아름드리 고목에 크스님들의 법명이 붙는다 해서 나쁜 것도 없겠으나, 별 인연 없이 붙여지는 나무 이름들이 과연 위신력 높은 전설을 만들어 후대에 어떤 감개를 불러줄지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서지 않는다.

김경자(언론인·본지 논설위원)

열린마당

'세계 산의 해'를 맞아

유엔이 2002년을 '세계 산의 해'로 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할은 절 이름 앞에 산자를 붙일 정도로 산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해왔다. 유엔이 정한 '세계 산의 해'를 맞아 산 환경 지킴이들의 제안을 듣는다.

"산 사랑은 훼손 않는 것"

지율스님 <천성산보호대책위원장>

산을 지키는 것은 산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산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산에서 나무가 베어져 나가고 산이 고풍 받는 모습은 섬뜩한 느낌을 준다. 이런 현장을 알리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산은 훼손하는 사람은 대개 산에 잘 오지 않는 사람이다. 산이 고통 받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산을 훼손하는 도를 놓고 혐도를 놓는다. 따라서 산의 참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



"도로·골프장 등 건설 자제"

이원균 <불교환경연대 활동국장>

산은 있는 그대로 되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로와 댐, 골프장의 무리한 건설로 산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북한산 관동도로의 건설 등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할 것이다. 자연 휴식년제를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또 산의 규모에 맞는 입산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 설악산의 경우 동시에 수만 명이 등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산이 황폐해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정상, 능선 등



"국민 모두 산지킴이 돼야"

김대원 <불교전국산악협 사무총장>

산행을 하다보면 가끔 외국인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세계 어디에도 도시와 접한 이러한 명산이 있는 곳은 드물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를 망각하고 살고 있다. 이런 망각이 산을 병들게 하는 것

같다. 개발이란 명분으로 산이 파헤쳐지고 잘려 나가도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불교 신약인들은 지난해 11월 양산 풍도사에서 모여 '사찰 환경 및 불교 문화재 지키기



가는 현장 체험 교육이 필요하다. 나는 올해 환경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국토 순례를 계획하고 있다. 불자들은 생활 속에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져야 할 것이다. 권한과 책임을 추구하고, 많이 소비하고, 많이 갖고, 많이 누리려는 태도는 환경의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권한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배를 위해 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놓고, 많이 소비하기 위해 산을 파헤쳐 광물을 캐낸다면 산은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반 위주의 산행 습관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가까이 있는 산을 즐기고 보호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찰은 명산들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산 지키기에는 사찰의 역할 또한 크다. 스님들이 산을 아끼는 마음으로 산을 찾는 관광객과 불자를 일깨워 준다면 가장 좋은 환경교육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이 먼저 환경 문제를 산 지키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실천 대법회'를 개최했다. 이것은 산행할 때 불법파괴행위와 사찰 및 불교문화재 보호차원의 모니터링과 제언 등을 통해 산을 보호하는 취향이 되는 선언이었다. 불교 신약인들이 이렇게 나서서 것은 청정국토와 찬란한 문화를 후손들에게 온전히 넘겨주어야 한다는 국민적 사명감에서이다. 모든 국민이 산 지킴이로 나설 때 가깝게는 북한산 관동도로 및 터널 공사가 중단될 것이고, 멀게는 우리의 산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특기교

간월암 산문폐쇄 웬말인가

새해 첫날을 사찰에서 보내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결정한 곳이 신라시대 원효·무학·만공 스님 등이 수행한 서산 간월암이다. 바다에 떠있는 모습이 마치 구름 속에 피어난 연꽃 같고, 하루 두 번씩 밀려오는 밀물 때는 물이 차서 솟아 났다가 쪼그라들 때는 물이 빠져 작은 자갈길로 육지와 연결되는 곳여서 출발하기 전부터 마음이 설레었다.

"자비의 등 지혜의 등" - 손 불국토를 장엄 하겠습니다

Advertisement for Chanduk Yundeung (찬덕연등제작사) featuring various types of lanterns (palm, gourd, etc.)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list of products like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민월등' and a list of services like '연등용 전선 케이블', '연등용 풍류별도 염가등'.